

지역 매 아리

러브인 교월동 추진 간담회

김제시 교월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우근)는 18일 관내 음식점에서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랑나눔의 장을 마련,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러브인 교월동' 사업추진을 위한 1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러브인 교월동 사업을 위한 초석다지기로 친밀감 형성과 사업 설명이 주 목적이다. 부가적으로는 나라별 리더 정하기, 행사 추진 전담사항,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은 각 나라 음식을 만들어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오는 8월에는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 친밀감 증진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노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2018년 취약계층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 A, B, C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해당되며, 제외 대상은 다른 법령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는 노인이다.

이번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관내 19개 읍면동에서 총 60명의 어르신이 선정되어 1인당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추진

김제시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사회적 주거 복지(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을 비롯하여 자활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한 세대이다.

자활기업(치우드림)의 도움으로 집안의 곳곳의 쓰레기를 치우고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복지에 크게 이바지하는 모범이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상 2층 48개 점포 새로 조성

완주 삼례시장 새단장

완주 삼례시장이 새롭게 태어났다. 18일 완주군은 삼례시장 개장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지난 1964년 완주군 공설시장으로 건립된 삼례시장은 그동안 시설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과 안전문제로 상인의 이탈과 소비자의 외면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지난 1995년 친체원 삼례시장 상권 회복과 경제중심축 재건을 위해 시장 재건축을 결정하고, 이전 부지를 물색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구 재래시장 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4년 국비 41억원을 비롯해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해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6 구 재래시장 부지에 지상 2층(연면적 2,773㎡)규모의 48개 점포를 신규 조성했다.

최혜덕 삼례시장 상인회장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장 상인과 주민, 행정이 하나가 돼 오늘과 같은 명품 재래시장을 재개장하게 됐다"며 "앞



완주군은 18일 삼례시장 개장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개장을 기념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더불어 삼례시장이 완주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장식에 참석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시장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어울리는 명품 시장이자, 삼례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청년몰 조성사업의 유치와 삼례 문화예술촌, 책마을 등 주변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향후 15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정주기반 시설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명품 무궁화꽃 만개

100리길·가로변 등에... 관광객 호응 얻어

완주군에 무궁화 꽃이 활짝 폈다. 완주군은 국내 최장의 무궁화 100리길(17번국도)을 비롯한 관내 가로변과 무궁화동산에 식재한 나라꽃 무궁화가 만개해 지역주민과 완주를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무궁화는 여름에 피는 꽃으로, 꽃의 색깔로 품종을 구분하는데 중심부에 단심(붉은색)이 없는 순백색 꽃이 배달계, 중심부에 단심이 있는 꽃이 단심계, 흰색 또는 매우 연한 분홍색 꽃잎 가장자리에 붉은 색무늬가 있는 꽃이 아사달계가 있다.

무궁화는 6월부터 10월까지 새로운 가지의 잎 겨드랑이 쪽에 꽃봉오리를 맺으며 꽃의 수명은 대개 12-15시간정도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대한민국 명품 무궁화길'에 선정된 완주 무궁화 100리길에서는 단심계를 비롯해 배달계, 아사달계

등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를 만나 볼 수 있다. 무궁화도시 완주군은 나라꽃 알리기와 나라사랑 고취를 위해 주요 도로변과 무궁화테마시설물, 무궁화동산에 7만 4100여 주의 무궁화를 식재·관리해 오고 있다.

무궁화 비배관리를 위해 매년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과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예초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회 연속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해 전국적인 무궁화 명품도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로 하나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고산자연휴양림에서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린다.

한신호 산림축산과장은 "무궁화를 나라꽃의 위상에 맞게 관리하고 홍보해 일상에서 사랑받는 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청렴달사의 마음으로”

〈清廉達事〉

박준배 김제시장,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 주제

박준배 김제시장은 18일 시청 대회 의실에서 취임 후 첫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직원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서 주무 담당 이상 간부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주요업무 보고와 지시사항 전달 순서로 진행됐다.

박준배 시장은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는 낙후와 침체에 빠진 김제를 청렴과 정의로 경제 도약시키고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선도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청렴달사(淸廉達事)의 마음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민선7기의 정책방향을 모든 부서가 숙지하고 지금 시민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김제시는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시정목표 아래 사회정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도약 등 민선7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 전 직원이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사 내 TV 중계 시스템으로 회의내용을 각 부서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장이 18일 시청 본관 3층에서 '청렴서약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여한 박준배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부조리 척결·공정사회 조성 앞장”

김제시, 간부공무원 청렴서약 결의대회

김제시는 18일 김제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서약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청렴서약결의대회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가 수립한 반부패·청렴 대책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조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들이 반부패 청렴분위기 조성에 솔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제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김제시 행동강령책임관인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이 간부대표로 나선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하고 깨끗한 사고와 행동으로 부조리 척결과 공정한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으며 간부공무원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의지를 약속하는 청렴서약

서에 서명을 하며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날 박준배 김제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로 재도약 절호의 찬스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청렴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김제시는 앞서 민선7기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간부공무원이 먼저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직원 소통강화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력,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시민과 소통하는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부패취약분야 예방감사 강화, 청렴활동 평가 및 환류 강화 등의 다양한 청렴 시책으로 공직사회 반부패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